

“北 1인 소득 3,000弗 수준 오르면 통일 논의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

“성공적인 경제개혁이 통일준비의 핵심요소”

금융시장 혁신·규제완화로 투자 유도를



8일 오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피스 경제포럼에서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GPF)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동호(왼쪽부터) 이화여대 교수,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카르티케야 사르마 ITV 네트워크 회장, 문 의장,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최정일 전 주독일대사,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은석기자

‘통일 한국’이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인류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피스재단이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글로벌피스경제포럼’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김주현 경제분과위원장은 “통일한국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에 위치해 7,500만인의 내수시장과 연구개발(R&D) 기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으로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일 전 주독일대사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어떻게 새로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함께 남북경협 방안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북한의 변화상을 반영한 남북경협 모델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 김진표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대웅 새누리당 의원, 카르티케야 사르마 ITV 네트워크 회장이 축사를 했다.

남북 통일논의 언제부터?

이날 발제 및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돼 의식주 문제가 해소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 내외가 될 때 남북 간에 자연스럽게 통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유와 남북한 교류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 힘이 통일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그 이전이라도 지도자의 결단이 이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봤다. 2014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1,200달러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통일한국 미래상: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국제 안보환경 및 남북한 정치·경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경제 통합이 성

北 의식주 문제 해결 땀 교류 요구 목소리 커져 동북아 경협 관문으로서 남북경협 중요성 봐야 ‘南자본+北노동력’ 벗어나 상업금융 지원 모색을 통일 과정에 해외자본 필요...대의 신뢰 쌓아야

공하기 위해서는 체제 통합 이전부터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남북 경제 통합의 시너지 요인은 극대화하는 반면 반시너지 요인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하면 통합 이후 10년 내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0대 경제국(G10)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 경협에 대한 새 시각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단순히 남북 양자관계 하에서 대북지원으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자관계 하에서 남북경협을 바라봐야 한다고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조동호 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래 차원의 시각과 통일 준비 차원에서의 시각, 또 세계 평화 차원의 시각으로 남북경협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찾아야 하며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문으로서 남북경협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그는 또 “남북경제가 통합되기 전에 북한 경제의 발전과 이행은 어느 정도 추진한다면 통합 작업이 수월해지고 통일 비용도 작아진다”면서 “남북경협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제가 바로 남북경협이라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상업 금융의 北 지원 모델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은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를 반영, 상업금융을 활용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 확대 △금융제도의 개혁 △경제개발구 도입 등 시장화·대외 개방을 지향하는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남북경협 모델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모델은 ‘남한 자본+북한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상업금융이

북한 기업을 바로 지원하는 형태다. 이는 북한이 시도하는 경제정책 변화에 반드시 수반되는 자본 조달을 지원해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훈 전 행장은 이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성공단에 적용한 후 북한의 경제개발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새 모델이 적용되면 북한 기업들은 체질 개선을 통해 북한 내 시장을 넘어 국제적 금융관행에 친숙해지고, 나아가 대외시장 체제를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는 ‘통일 대박’이 현실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과정과 해외자본 유입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과정에서의 재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와 북한지역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통일 진행 과정에서 일정 기간 발생될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최준욱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인 신뢰가 이자율 및 자본 유입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통일방안과 함께 한국의 개혁 및 위기극복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줘 대외적인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 인적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과 같은 물질적인 기반보다는 이러한 기반을 관리해 나갈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희명기자 nevermind@sed.co.kr

문현진 GPF의장 기조연설

문현진(사진) 글로벌피스재단(GPF) 의장은 8일 “통일 준비에 있어 성공적인 경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혁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의장 기조연설 요약.
“해방 70주년을 맞아 이곳 서울에서 제1회 글로벌 피스 경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통일한국을 위한 21세기 경제모델 건설입니다. 한반도에는 통일이 가능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에 있어서 성공적인 경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주도와 재벌중심의 진부한 경제 패러다임은 역동적인 모델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정체돼 있고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도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바로 정실 자본주의와 그로 인한 반기업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련 법과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벌 중심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자본창출’에 참여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현재 수준을 초월해 돌아갈 것이며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경제개혁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융시장의 혁신과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정부정책 지원을 받는 금융기



관들은 초과 자금을 묵히지 말고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생존과 성장은 한국 금융이 해외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그것을 한국에 어떻게 접목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관료주의적이고 위험감수를 싫어하는 한국 금융기관들은 국내외의 기회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은 성장기회를 자본화하는 데 뛰어납니다.

저는 2008년부터 파라과이에서 GPF재단과 최고의 싱크탱크를 창설해 국가적인 변혁을 이끌었습니다. 2000년대 초 외국자본이 투자하기에 가장 불안했던 나라가 지금은 가능성이 상당한 미개발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금융기관과 파라과이의 가능성에 대해 논할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치의 확대보다 평범한 안전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감하지 못하며 분명한 기회를 자본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희명기자

“통일충격 이겨낸 독일의 개혁 교훈 삼아야”

최정일 전 주독일대사

최정일(사진) 전 주독일대사는 “독일은 변화와 개혁을 거쳐 통일의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시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피스재단(GPF)이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글로벌피스경제포럼’에서 최 전 대사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경험”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대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부가 지난 2003년 ‘어젠다 2010’이라는 전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한 후 독일 경제는 서서히 경쟁력을 회복했다”면서 “통일 후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유럽 제1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25년 동안 약 2조유로의 통일비용을 부담했으며 이는 우리 돈으



로 환산하면 매년 150조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초에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고 실업자가 500만명

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에 슈뢰더 총리는 당시 임시직, 미니 일자리 등 고용을 창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했으며 실업수당 등의 복지를 축소하고 정년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28개국 경제의 20.7%를 차지하며 세계 2위의 수출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독일의 이 같은 통일 및 통합 과정이 한반도 통일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교훈 삼아 한반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외국환율 고시							●국제 금융시세							●국제 상품시세							●해외증시동향												
		8월 (단위: 원)		우리은행				美 달러		citibank		(7월) NH농협은행																					
국명	통화명	전선환	현환	매매 기준율	대미 환산율	미물당 환산율	TC 매도율	日 100엔	유로	환가료(8월)	구분	상품명	단위	인도월	가격	동락폭	거래소	구분	추가지수	8월 증가	전월대비	증락폭(동락폭)	구분	상품명	단위	인도월	가격	동락폭	거래소				
미국	달러	1,170.20	1,147.80	1,179.28	1,138.72	1,159.00	1.0000	1.0000	1.173.46	WTI	달러/배럴	11월물	47.81	▽0.72	NYMEX	뉴욕	뉴욕	16,912.29	▲122.10(0.73)	▲122.10(0.73)	미국	달러/MMBTU	11월물	2.474	▲0.004	NYMEX	프랑스	CAC 40	4,667.34	▲6.70(0.14)	▲6.70(0.14)		
일본	엔	976.42	957.66	983.96	950.12	967.04	0.8344	1.1985	978.13	천연가스	달러/MMBTU	11월물	2.474	▽0.032	NYMEX	러시아	RTS	844.12	▲17.47(2.11)	▲17.47(2.11)	일본	달러/엔	11월물	1.5796	▽0.032	NYMEX	브라질	BOVESPA	48,914.32	▲1,179.21(2.47)	▲1,179.21(2.47)		
유럽	유로	1,318.19	1,292.09	1,331.24	1,279.04	1,305.14	1.1261	0.8880	1,318.98	가솔린	달러/갤런	11월물	1.3900	▽0.046	NYMEX	이탈리아	MIIB	22,007.34	▽175.31(0.79)	▽175.31(0.79)	중국	달러/인민위	11월물	6.2500	▲0.001	NYMEX	독일	DAX	9,970.40	▲67.57(0.68)	▲67.57(0.68)		
중국	위안	-	-	195.25	169.71	182.48	0.1574	6.3514		옥수수	센트/부셸	12월물	395.75	▽2.50	CBOT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10.19(0.16)	한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CBOT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노르웨이	크로네	142.59	139.77	144.00	138.36	141.18	0.1218	8.2094		Clean	센트/부셸	12월물	516.75	▽9.50	CBOT	러시아	모스크바	3,143.36	▲90.58(2.97)	▲90.58(2.97)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CBOT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10.19(0.16)		
뉴질랜드	달러	771.41	756.15	779.05	748.51	763.78	0.6590	1.5175		하자	센트/부셸	11월물	891.00	▲3.00	CBOT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중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CBOT	한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대만	달러	-	-	37.84	33.56	35.70	0.0308	32.4650			돈자육	센트/파운드	12월물	65.98	▽0.75	CME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10.19(0.16)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태국	바트	32.60	31.96	32.92	31.64	32.28	0.0279	35.9046			금	달러/온스	12월물	1148.70	▲2.30	COMEX	프랑스	CAC 40	4,667.34	▲6.70(0.14)	▲6.70(0.14)	중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인도네시아	루피아	8.50	8.34	8.58	8.26	8.42	0.0073	137.6485			은	센트/온스	12월물	16.09	▲0.110	COMEX	독일	DAX	9,970.40	▲67.57(0.68)	▲67.57(0.68)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캐나다	달러	895.76	878.04	904.63	869.17	886.90	0.7652	1.3068			백금	달러/온스	11월물	946.40	▲11.70	NYMEX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10.19(0.16)	중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쿠웨이트	디나르	3,876.16	3,799.42	3,914.54	3,761.04	3,837.79	3.3113	0.3020			팔라듐	달러/온스	12월물	699.50	▽8.20	NYMEX	러시아	모스크바	3,143.36	▲90.58(2.97)	▲90.58(2.97)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태국	바트	32.60	31.96	32.92	31.64	32.28	0.0279	35.9046			전기동	달러/톤	3개월물	5187.00	2.00	LME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10.19(0.16)	중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필리핀	페소	-	-	26.68	23.66	25.17	0.0217	46.0469			알루미늄	달러/톤	3개월물	1577.00	▲24.00	LME	독일	DAX	9,970.40	▲67.57(0.68)	▲67.57(0.68)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호주	달러	840.12	823.50	848.44	815.18	831.81	0.7177	1.3933			니켈	달러/톤	3개월물	10170.00	▲210.00	LME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10.19(0.16)	중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홍콩	달러	151.01	148.03	152.51	146.53	149.52	0.1290	7.7515			아연	달러/톤	12월물	62.05	▽0.03	ICE	독일	DAX	9,970.40	▲67.57(0.68)	▲67.57(0.68)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납	달러/톤	3개월물	1674.00	▲45.50	LME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10.19(0.16)	중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주석	달러/톤	3개월물	16050.00	▲350.00	LME	독일	DAX	9,970.40	▲67.57(0.68)	▲67.57(0.68)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원연	센트/파운드	12월물	62.05	▽0.03	ICE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10.19(0.16)	중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원당	센트/파운드	3개월물(16년)	13.98	▲0.35	ICE	독일	DAX	9,970.40	▲67.57(0.68)	▲67.57(0.68)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커피	센트/파운드	12월물	126.05	▽2.05	ICE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10.19(0.16)	중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코코아	달러/톤	12월물	3079.00	▽13.00	ICE	독일	DAX	9,970.40	▲67.57(0.68)	▲67.57(0.68)	미국	달러/원	11월물	891.00	▲3.00	▲3.00	독일	이탈리아	22,007.34	▽175.31(0.79)	▽175.31(0.79)	
											오렌지주스	달러/파운드	11월물	108.70	▲0.85	ICE	영국	FTSE 100	6,336.35	▲10.19(0.16													